

목어

체면과 양심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양심 있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양심이 없는 자가 너무 많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잊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모르는 파렴치한들이 지존의 자리에서 세상을 제멋대로 만들려고 하고, 지체 높은 어른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물리친 채 권력에 만 더욱 눈이 솔리고 있고, 양심 있는 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첩면피 행세를 한단 말인가. 참 요지경 세상이다.

국민의 정부라고는 하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그 토록 외치던 민주화는 어디로 가야 보겠으며, 손도 안대고 코 풀며 으스대는,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꼴볼견은 가히 가소롭다. 그러면서 도리어 남을 통치하려 하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입 값을 납작납죽 잘도 받아 챙기고, 속빈 강정처럼 양심도 없이 겉치레만 미끈한 꼴이 잡으로 고소를 금지 못하게 한다. 목탁은 속이 제대로 비어야 소리가 잘 난다. 인간은 마음을 제대로 비우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제 아무리 잘 두드려도 청아한 목탁 같은 인간 양심의 소리는 나지 않는다.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누구의 앞에서든 떳떳하게 제 행세를 할 수 있다.

<금강경>에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음의 본성과 같이 맑고 밝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삼해경(三慧經)>에 '사람이 제 마음도 이기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마음을 이기려고 하거나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라고 하였다. 여기서 '남의 마음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남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의 앞에서 군림하려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기도하고, 참선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바로 어리석게 남을 속이기 위해 끌려다니는 간첩귀의 모습은 아닌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되찾는 것이 바로 성현의 길이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 땅에 大運이 드시는가

물자 세상보기

2002년, 아무래도 이 땅에 대운이 드는 것 같다.

나라 안을 온통 열기로 달구어 갈 월드컵 경기와 그에 비견되는 부산 아시안 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거센 정치 계절풍 등, 일찍이 이토록 다양한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렸던 해가 있었는가.

다가올 행사들의 엄청난 질량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 게임으로 한국의 국민적 역량과 민도(民度)가 전 세계인 앞에서 시험 받게 될 것이며, 초여름과 가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민주시민의식과 그 성숙도가 채점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다.

6월 한 달간 치러질 월드컵 경기의 공동개최국은 일본이다. 당연히 비교될 그 일본에 비해 과연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만한 자신이 있는가도 걱정거리라 한다.

근거 없는 걱정들이 아니다. 한 예를 보자.

1년 전 선해보험협회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한·일 간 질서외식을 비교 조사해본 결과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의 교차로 통행 위반율이 일본 1.9%, 한국은 그 13배인 24.5%로 나왔으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율과 안전띠 착용규

“월드컵·양대선거 앞두고 질서외식·건전 정치풍토 국민적 저력 발휘 믿는다”

정위반도 3배에 이른다.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한·일 국민 간 질서외식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질서외식을 높이는 데는 사회적 믿음을 굳건히 해 주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질서외식은 사회적 믿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정치현실은 깊은 불신과 분열만을 키워가고 있어 질서외식을 키워갈 여력을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를 대운이 드는 해로



김정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애정 없이 정치가 제대로 지랄 수는 없다. 선거에 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정치인을 가릴 줄 아는 지혜의 눈이다. 신선한 변화를 불러들이는 데는 불교의 역할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등으로 한국의 높은 정신적 경지와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줄 기회를 불교가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정치인을 뽑는데 부처님 지혜의 눈이 큰 힘을 보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임오년 불교계에 바란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주5일제 근무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어느 해 보다 포교환경의 변화가 큰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력의 말미에, 임오년을 맞아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각계불자들의 바람을 들어본다.

“불교유물유적 철저 연구”

○...옛 절터에 대한 수많은 지표 및 발굴조사에 따라 과거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단면을 문헌이 아닌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옛 절터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문화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옛 절터는 종교건축물의 잔영이 남아 있는 것이기에 건축사적인 이해만으로는 사지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한다.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 소위 신앙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도 이루어질 길 바란다. 그럴 때 과거 불교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정석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불법 외호하는 불자되자”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가르쳤다. 임오년 한 해 동안 승가와 재가 모두가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재가는 수행과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본래 청정하고 자유자재한 자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가는 자성을 찾는 것 외에도 재가의 수행을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해인사에서 열린 공무원불자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법전 스님은 “불법을 외호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수행과 수행에 따라 불제자로서

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자성을 등불로 삼아 더불어 수행하고 신행하며, 불교계를 가꾸어 갔으면 한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

“급변하는 시대 맞는 포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포교정책 개발이다. 앞으로 각 종교계의 실행생활은 급변할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가족 단위의 수행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및 나눔의 행사(봉사 활동)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개별 사찰 및 산사에 보급시켜야 한다. 20세기가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보고 듣는'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touch by touch' 시대이다. 단순히 보고 듣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불교 수행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조승미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불교 소장학자 지원책”

○...한국 불교학은 해방 이후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한층 성장했다. 특히 올해 5월 불교학자들의 한마당인 불교학 결집대회가 개최된다. 약 200여명의 학자들이 불교와 관련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집대회를 통해 배출되는 불교소장학자에 대한 종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는 인재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국대학 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학에서 불교를 직간접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장학자들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서약할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하다. 이들이 지역단위의 사찰과 연대해서 포교 및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차상열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말하기 보다 듣기 생활화”

○...사람들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능숙하게 말하고 표현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인식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화합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이 땅의 모든 사부대중이 천 개의 귀를 가진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서로 서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화합을 일구어내기를 기원해 본다. 황선정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특기고

탁발·부적 파는 스님 '경계'

요즘에는 탁발 다니는 스님이 너무나 많다. 스님의 탁발이 금지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탁발을 다니는 스님들을 보면 목탁도 제대로 두드릴 줄 모르고 염불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게다가 모습이 단정치 못해 일반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여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문제는 또 있다. 탁발을 다니며 부적을 나누어 주는 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진정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탁발을 다니신다면 과연 부적을 나누어 줄까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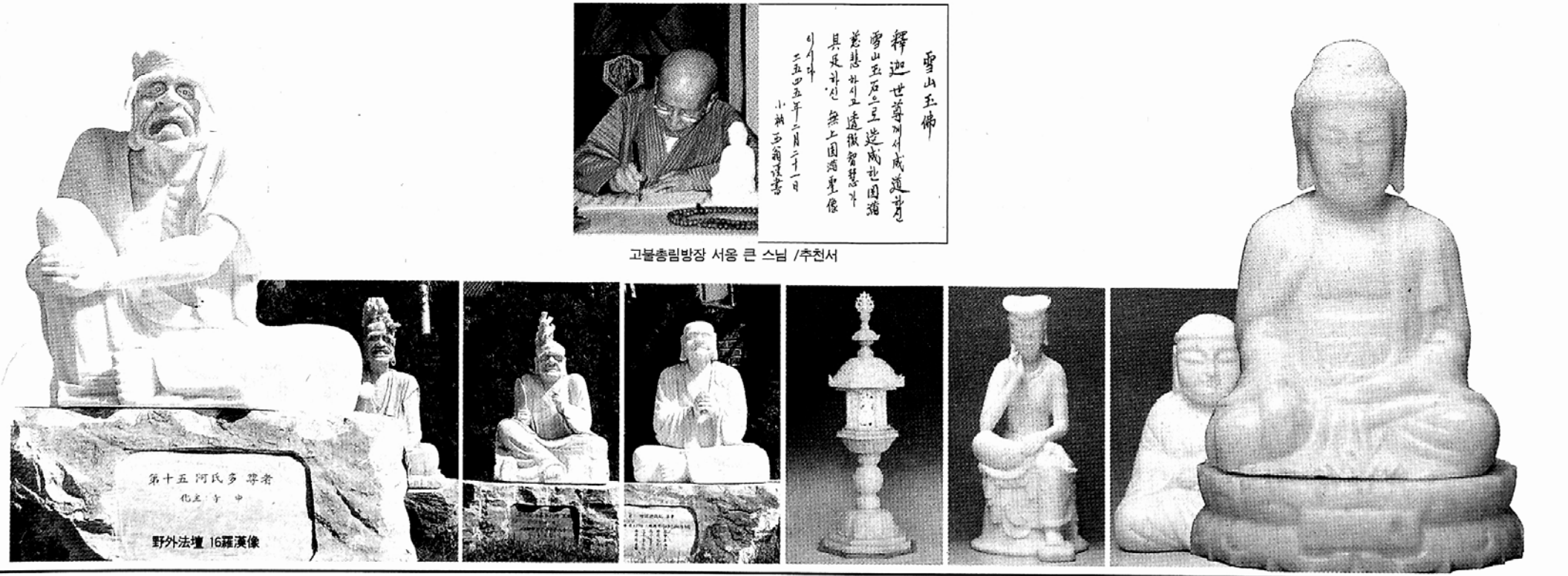
얼마 전 내가 운행하고 있는 가계에 스님이 라고 자칭하며 '나 00사에서 왔는데 기도하라'며 얼마를 주면 기도문을 붙여 준다고 고역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무례했다. 의자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스님의 행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말 또한 거칠었다. 나는 그런 행동에 화가 나서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으나 그럴수록 스님의 말투는 더 심해졌다. 결국 1천원을 건넌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이까짓 것...'이라며 돈을 집어 던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청정하신 스님들을 욕되게 하는가 하는 마음에 저절로 화가 났다. 청정하신 스님들께서 수하시는 가사를 아무나 입고 욕되게 연행을 하고 다녀서야 말이 되는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5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888



고불총림법장 서운 큰 스님 /추천서